

신년사



벌써 4년, 따뜻한 한해 되십시오

‘흑룡의 해’라고 하는 2012년 임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회원님들의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는 국가적으로 총선(4월)과 대선(12월)이 있는가 하면 사우회는 현 임원진의 4년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임원진이 구성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4년이라는 세월이 어찌보면 긴것 같기도 하지만 돌아보면 회장으로서의 4년은 너무 빨리 지나가버린것 같아 아쉬움이 전하게 납니다. 그렇지만 소식지를 시작으로 해서 ‘사우회보’를 발간한 것은 두고두고 기억에 남을것 같습니다. 소통과 정보제공을 모토로 한 사우회보는 계속해서 사우회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4년전 1,120여명이던 회원이 지금은 1,280여명으로 160여명이나 늘었습니다. 사우회가 회원님들간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음이 틀림없다고 여겨집니다.

지난 9일에 열린 제1차 이사회를 시작으로 해서 제2차 이사회, 그리고 2월 말의 정기총회 등 일련의 회의를 거치면서 앞으로 4년동안 사우회를 이끌어 갈 새로운 임원진이 구성될 것입니다. 능력있고 비전을 가진 임원진이 구성돼서 부쩍 커져버린 사우회를 잘 이끌어 갈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소통과 나눔’이 화두인것 같습니다. 그것이 대화이든 물질이든 많이 통하고 많이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 사회가 보다 더 성숙해 질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원님들도 가족끼리 친구끼리 그리고 사우회 회원끼리 많이 소통하고 많이 나누는 따뜻한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MBC 사우회 회장 강영구

신년사



MBC 100년 역사를 향한 발걸음 격려 부탁드립니다

201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사우회 선배님들과 가정에 새해에는 좋은 일이 가득하기를 기대합니다. 창사 50주년을 맞이했던 지난 한 해 문화방송은 사상 최고의 경영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연간 평균 시청률은 8.2퍼센트로 방송사 가운데 1위를 달성했습니다.

연간 매출액도 사상 최고를 기록해 본사 매출액만 9천억 원을 넘어섰고, 자회사와 계열사 등을 포함한 MBC 그룹의 총매출액은 1조 8천억 원에 이릅니다. 적극적인 글로벌 전략에 따라 콘텐츠 사업 분야에서만 2천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쾌거도 이룩했습니다. 이런 성과는 사우회 선배님들의 지지와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MBC는 한류 확산의 교두보로서 역할을 다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회사는 지난해 말 글로벌사업본부를 확대하고 인력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중국 상해 법인이 문을 열었고 일본지사, 중남미 지사, 중동·아프리카 지사에 이어 인도네시아지사를 설립해 해외 직접 진출을 위한 기지를 확보했습니다.

올해는 중앙아시아, 몽골지사가 문을 열고 베트남지사 설립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전략이 강화되면서 올해 MBC의 콘텐츠는 세계적인 기업 규금을 통해 더욱 널리 확산될 것입니다.

전 세계 시청자들이 구글 유튜브에 설치되는 ‘MBC 채널 (가칭)’을 통해 MBC의 드라마를 보고 MBC의 예능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올해 회사는 손정의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와도 전략적 제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MBC 콘텐츠의 글로벌화가 가속화될 것이며, 더 많은 세계 사람들이 MBC의 명품 콘텐츠를 즐기게 될 것입니다.

올해 우리 회사의 슬로건은 ‘통 MBC 통통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룩한 경제성장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진정한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소통이 필수적이며, 문화방송은 그 소통을 위한 매개체가 될 것입니다. MBC의 100년 역사를 향한 발걸음에 사우회 선배님들의 격려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주) 문화방송 대표이사 김재철

차기 회장에 김수량이사 <기술부문> 추천, 2월 정기총회에서 선출

2012정기총회 2월 27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개최

임원선선과 2011결산-2012예산 승인 등 중요한 의제를 다룬 2012년 사우회 정기총회가 2월 27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서울 광화문에 있는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다.

올해 정기총회에서는 2월말로 임기가 끝나는 강영구 현회장의 뒤를 이어 2016년 2월까지 앞으로 4년간 사우회를 이끌고 갈 차기회장을 비롯해서 각 부문 부회

장 6명 등 사우회 회장단을 선출하게 된다. 또한 각 부문 이사 12명도 총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게 된다.

임원 선임과 관련해 사우회는

2012예산-2011결산 승인 부회장 6명·감사 등 선임

2011년도 제1차 사우회 회장단 회의(12월 6일)를 열고 차기 임원

선임 방법과 날짜 등에 관해 논의했다.

2012년도 제1차 이사회(1월 9일)에서는 12월의 회장단 회의의 협의에 의거해 기술부문의 김수량이사(現 공주영상대학총장)를 새로운 회장 후보로 추진했다.

이어 김 차기회장후보와 현 부회장들이 각 부문 차기 회장단과 이사진 구성에 관해 의견을 나누는 뒤 2월 17일에 열릴 제2차 이사회 때 부회장 6명과 이사 12명을 추천하기로 했다.

사우회회원 신규가입 10월이후 급증

OB 초청캠프 등을 계기로 가입 적극추진



사우회 회원이 10월 이후 급증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MBC를 바로 퇴직한 사원을 비롯해서 1년에 3~40명 정도가 사우회에 가입해 왔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10월 이후 3개월 동안에 54명이 무더기로 가입하는 등 90명이 신규로 가입해 예년의 두배를 훌쩍 넘어섰다.

이와같은 현상은 MBC가 창사 50주년 기념으로 강촌

에서 1박2일의 OB초청캠프를 가진데 이어 퇴직사우원에게 썸을 배달하자 기존의 회원들이 다른 사우들에게 사우회 가입을 적극 추천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있다.

또한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사원들은 2012년 부터 사우회 가입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가입을 서두른 측면도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가까이 오지 마라!
내게서 멀어지지도 마라...

MBC 수목 미니시리즈

해를 품은 달

수·목요일 밤 9시 55분

홍대만남3

2011 사우회 송년회 6백여명 참석 대성황

강영구 사우회장 '회원들의 관심과 격려 너무 고맙다'
김재철 사장 '선배들 따님과 희생으로 창사 50주년 기념탑 우뚝 섰다'

12월 15일 마포가든호텔 서 개최



2011년 MBC사우회 송년의 밤 행사가 12월 15일(목) 저녁 6시에 서울 마포 가든호텔 무궁화홀에서 열렸다.

사무처가 예상한대로 지금까지 가장 많은 6백여명이 참석했다. 540여명을 수용하는 무궁화홀이 모자라 별실을 빌려야 했으며 60여명은 별실에서 식사를 해야했다.

이날 송년회에는 강성구·엄기영 전 MBC 사장을 비롯해서 내부·건설부장관을 지낸 부산MBC 김우석 회원과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 대한민국헌정회 권해옥 사무총장 등이 참석해서 자리를 빛내주었다. 강영구 사우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MBC의 전폭적인 지원에 감사료를 표하며 참석해 주신 회원들의 관심과 격려에도 고맙다'고 말했다.

MBC 김재철 사장을 대신해서 고민철 경영지원본부장은 '사우회 선배들의 따님과 희생이 모아져 MBC가 창사 50주년을 화려하게 맞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하고 앞으로 1등 MBC를 지켜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사우회 송년회는 지난해에 이어 개그맨 서승만의 재치 넘치는 사회로 분위기를 화끈하게 이끌었으며 MBC '위대한 탄생'이 배출한 정희주와 이태곤이 출연해 특별한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뽀빠이네도 송년회의 가장 큰 관심은 행운권 추첨.

기술부문의 김세하 회원을 시작으로 40명이 10만원 짜리 상품권을 받아가면서 장내 분위기는 절정으로 치달았다.

150만원짜리 국내 여행권을 차지한 주인공은 모두 6명. 김병택-고무송(이상편제), 안영식(기술), 김영균-김세중-이상수(이상관리) 회원이 다른 회원들의 부러움을 사며 차례로 여행권을 받아갔다. 이제 남은 행운권의 주인공은 4명,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2백만원 짜리였다.

조복현(기술)회원이 첫 주인공이 됐고 이어 이종구(관리), 김동진(보도), 김중복(편제)회원이 영광하다 못해 허탈해 하는 회원들의 눈길을 뒤로하고 행운권을 거머쥐게 자리로 돌아가 영웅대접을 받기도 했다.

국내의 여행 티켓, 상품권등
푸짐한 행운잔치

'송년의밤 사나이' 김동진회원
2년 연속 대박

'원 이웃제 도입해야하는 것 아니야'
농담하며 큰박수

특히 김동진(보도)회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으로 2백만원 짜리 행운권에 당첨되면서 '송년의밤 사나이'로 불리게 됐다.

이날 송년회에는 MBC 김재철사장과 정수장학회 최필립이사장, 대한민국헌정회 권해옥사무총장이 화환을, 그리고 흥국화재해상보험 김용건사장이 대형화분을 보내 축하해 주었다.

사진-자전거-당구 등 동호클럽 창립 추진

사우회, 10명 이상 동호회는 지원예정

사우회 골프·낚시·등산·바둑 동호클럽이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 사진 등 취미가 다른 동호클럽을 만들자는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다. 이들은 사진, 자전거, 당구, 볼링 클럽을 만들면 많은 동호인들이 참여할 것이라면서 사우회가 활성화 되는 데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새로운 동호클럽의 발족에 관심이 있는 회원들께서는 사우회 (02-722-7416)로 연락하시면 된다.

사무처는 동호클럽별로 10명 이상의 회원이 확보될 경우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공부동아리 '한문공부방' 개설 1년

매주 목요일 논어공부... 연락하세요

지난해 3월에 시작한 한문 공부방은 이진세(편제) 훈장의 지도아래 매주 목요일 10시에 12~3명의 회원이 사우회 사무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통감절요'와 '격몽요결'을 배운데 이어 지금은 '논어'를 공부하고 있다.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사우회로 연락하세요.

사우회-4개 동호클럽 회장단 송년모임

사우회 임직원과 4개 동호클럽 회장단 (회장-총무)이 참석한 송년모임이 12월 20일 (화) 종로 3가에 있는 부산 횡집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등산, 낚시, 골프, 바둑 등 4개 동호클럽 회장단 전원이 참석했으며 사우회에서는 이연현 상임부회장과 백하현 총무이사, 최준식 사무처장, 직원 노영혜씨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진호 등산클럽 회장은 '사우회의 지원으로 각 동호회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감사를 표하고 물가오름을 감안해서 2012년부터 지원 액수를 가능한 선에서 인상시켜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연현 부회장은 동호회가 활성화 되어야 사우회도 활력을 받는다고 공감을 표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약속했다.

사우회와 동호클럽 회장단이 공식적인 송년모임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우회 사무처 송년회

또 사우회사무처는 12월 29일(목) 오후, 사무실에서 송년모임을 갖고 지난 한해동안사우회를 격려하고 도와주신 회원님들께 고마움을 표했다.

이날 송년회에는 노서을·이만우 고문등 30여명의 회원이 자리를 같이해 지난 1년동안 사무처 직원들의 노고를 위로해 주었다.

이날 송년모임에는 강성주 포항 MBC 사장이 포항 특산물인 과메기를, 이동운 前총국화제이사가 심심한 회를 안주감으로 보내와 송년모임에 참석한 회원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기도 했다.

퇴직 사우들에게 창사 50주년 기념쌀 지급

MBC가 창사 50주년을 맞아 소재가 파악된 퇴직사우들에게 쌀 40Kg씩을 지급했다.

MBC 김재철 사장은 10월 21일과 22일 강촌 엘리시안에서 열린 OB초청 캠프에서 MBC의 발전에 기여한 퇴직사우들의 공로를 위로하기 위해

쌀 40Kg씩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따라 MBC 총무부와 사우회 사무처가 11월 한달동안 주소와 핸드폰 번호 확인 작업을 벌였고 11월 25일부터 12월 1일 사이에 10Kg짜리 4포대씩 모두 40Kg의 햅쌀이 퇴직사우 가정으로 배달됐다.

본사, 사무처직원 해외여행 지원

사우회 사무처 임직원 3명이 MBC의 지원을 받아 11월과 12월에 걸쳐 해외여행을 하고 돌아왔다.

사우회 직원들이 MBC의 도움으로 해외여행을 실시한 것은 사우회 창립이후 처음이다.

2011 가을철
친선바둑대회

A조(4급이상) 우승 : 한박무(보도), 준우승 : 권혁준(편제)
B조(5급이하) 우승 : 나일수(관리), 준우승 : 전영수(편제)

OB캠프, 퇴직사우들에게 자긍심과 감격 안겨줬다

前 총천MBC사장 박 기 병



박 기 병
前 총천MBC사장

가을도 깊어가는 지난 해 9월 MBC 김재철사장으로부터 MBC창사 50주년을 맞아 MBC의 OB초청캠프 행사에 참석해 달라는 초청장을 받았다.

초청장을 받고는 감사하다는 생각과 함께 그 많은 퇴직사우를 그 것도 1박2일 일정에 강원도 춘천시 남면 백양리 소재 엘리시안 강촌으로 초청한다니, 어떻게 관리하고 일정을 차질없이 소화할 수 있을 까하는 염려도 있었지만 MBC에서 주도면밀하게 기획했고 차질없이 행사를 진행 마무리 지었다는데 높이 평가하고 싶었다. 더구나 퇴직사우를 위해 이번과 같은 큰 행사는 처음일뿐 아니라 퇴직사우들의 자긍심을 심어 주었다는 데에서 보람있고 뜻있는 행사였다고 본다.

현장에 도착하니 3백50명의 사우들이 모여든 것이 아닌가! 김재철사장은 콘도 분 앞에서 사우들 한사람 한사람을 끌어 안으며 반갑게 '잘 오셨습시다'라고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정말 감격적인 순간이었다.

여기저기서 얼마만이야 하는 인사들이 터져 나왔다. 웃음리와 국악공연, 행운권 추첨 등 행사프로그램도 다양했다. 저녁식사 후 마련된 화합의 장에서는 밤 깊어가는 모르고 술잔이 벌어져 오랜만에 만난 사우들의 정다운 회포를 푼 자리가 되었다. 쯤은 MBC가 창사50주년을 맞는 해에 시청률도 높아지고 광고 수익도 최고액을 올렸다는 소식은 정말 고무적인 일이었다.

퇴직사우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감격을 안겨 준 MBC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아쉬웠던 것은 자유시간에 춘천의 명승지, 소양강댐을 관광하고 춘천의 명물, 막국수를 맛 볼 수 있는 일정과 행운권 추첨도 중복추첨을 피하고 될 수 있으면 많은 사우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어땠을까.

송년회 초청장은 다시금 MBC 근무시절을 떠올리게 한다

박 민 정 회원(ANN)



박 민 정
아나운서

2011년 12월 15일 6시 가든호텔-- 6시 정각 도착하자마자 우린(남편 고장석PD와 2년 전부터 열심히 같이 다니고 있다.) 이미 지각생이었다. 벌써 많은 분들이 오셔서 반가움을 나누고 있었다.

스튜디오 앞에서 마주보던 엔지니어, PD, 기자 선배님들과 악수를 하며 잠시 젊은 시절을 엿본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어렵지만 했던 대선배님들- 아침 출근 후 녹음 전에 차한잔 마시던 투게터 다방에 떠다니던 얘기들-아나운서 체육대회에서 축구선수로 뛰었던 추억, 그중 알권은 아침 7시 뉴스 진행할 때 슬쩍 긴급뉴스 한 장을 더 밀어 넣어주던 악몽의 순간이다.

기자들의 글씨는 엄청난 달필(?)이었으므로-그렇게 함께 일하던 한 분 한분이 사우회 덕분에 이제는 함께 나이 들어가는 모습이 정겹다.

다시금 MBC사우회를 이만큼 탄탄하게 만들어주신 선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올해는 김재철 사장의 배려로 강촌에서 1박2일을 해서인지 더욱더 반가웠다.

아쉬운 점은 행운권 추첨 시간에는 행운권에 당첨된 분 만이라도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어디에 근무했는지 간단한 인터뷰를 했더라면 더 따뜻한 사우의 정을 느낄 수 있지 않았을까?

작년에 이어 연거푸 행운의여행권이 주어진 김동진 사우를 모두 부러워했다. "모이자 뭉치자 전진하자" 박근숙 전 회장님의 건배사처럼 만나면 좋은 친구~~MBC문화방송 사우 여러분!!! 모이고 뭉쳐서 MBC발전을 기원하며 전진합시다!!!



차 한 잔

"우연히 알게 된 사회복지 분야가 제2의 천직이 됐죠"

- 지금의 일을 하면서 삶에 대한 철학이 바뀌었다

천사복지재단 상임이사/원장 이현우



▶32년간 아나운서로 살면서 세속적인 성공에 목말라 했으나 지금의 일을 손에잡는 순간 삶은 아름답게 변했다고 실트했다.

지난 2008년부터 노인복지를 전문으로 하는 천사복지재단에서 일하고 있는 이현우 상임이사(겸 산하시설원장). 특별한 관심도 없었고 잘 알지도 못했던 분야지만 지금은 '하지 않았다면 후회했을 일'이 됐다.

"퇴직을 앞두고 자연스레 기회가 찾아 왔어요. 제 전문 분야가 아니었는데도 큰 자리를 맡게 돼 사실 부담이 됐죠. 그런데 막상 일을 해보니 새로운 세계더라고요. 지금은 하루하루 제게 기쁨을 주는 일이 됐으니 오히려 제가 고맙죠."

사실 그에게 찾아온 기회가 우연만은 아니었다. 2003년, 교회에서 장로로 시무하며 사회복지국장을 맡고 있던 중 '앞으로 사회복지 분야가 될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큰 뜻 없이 지원한 사회복지대학원에 필적 합격했다. 졸업과 동시에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얻게 됐고 내친 김에 사회복지사 1급 국가 자격증까지 땀다.

그리고 묵혀뒀던 자격증이 퇴직을 앞두고 빛을 발하게 된 것이다.

"가장 먼저 맡은 일이 흥천에 노인요양원을 설립하는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잘할 수 있을까 염려도 됐지만 하다 보니 저한테 너무 맞는 일이라 싶더라고요. 퇴직 후 하루도 빠짐없이 서울과 흥천을 오가며 일하고 있지만 바쁘게 오가다보니 제가 더 에너지 얻는 기분이에요."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평생교육사 자격증도 땀다.

지금은 사회복지 대학원 박사 과정을 끝내고 논문심사도 통과돼 2월에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된다.

또 요양원에서 생활하는 어르신들

에게 즐거움을 드리고 사회공헌 활동도 더 많이 하기 위해 아코디언도 배우고 있다.

"어르신들의 삶을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많은 걸 느끼게 돼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만큼 축복은 없어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게 바로 사회복지인 거죠. 사소한 것에도 크게 기뻐하시는 어르신들을 보면 퇴직하면서 노인요양원 설립위해 서울·흥천 오가며 새 에너지 얻어 노인들의 평생 교육을 위한 한국식 '그레이 캠퍼스' 설립하고

2월엔 사회복지학 박사 취득

요양원 어르신들에게 즐거움 주고 사회공헌 폭 넓히려 아코디언 배워

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다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32년간 MBC 아나운서로 살면서 그 역시 세속적인 성공에 목이 말라 있었다.

큰 부침 없이 아나운서로서의 삶을 마무리했지만 사실 더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다. 그러나 지금의 일을 하면서 삶에 대한 철학이 변했다.

"생각해보면 전직위복이 된 순간이 많았어요. 그 순간들이 모여서 제게 길을 열어줬다고 생각해요. 위기를 맞았을 때 그것에 대해 불만을 갖기 보다는 기회로 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깨닫게 됐어요."

지난 3년간 노인 복지 분야에 열정을 쏟았지만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한 달 간 사회복지 분야 현장 체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때 미국에는 이른 바 노인들의 평생 교육을 위한 '그레이 캠퍼스(Grey Campus)'라는 게 유행이더라고요. 이거다 싶었죠. 노년의 삶에도 꿈이 있다면 그만큼 행복한 게 없잖아요. 아직은 구상 단계지만 여건이 되면 한국에도 이런 캠퍼스를 만들어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름은 한국식으로 '노인 마당'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박성희 기자 birdy23@naver.com

ESSAY



임 주 완
시우회 이사

그동안 나는 내 나이에 비해 (내가 살아온 경륜에 비해) 참으로 많은 주례를 해 왔다. 어림잡아 80쌍은 더 될 것 같은데..

잘 기억이 나질 않고 또 그럴 것이 요즈음 세태가 결혼 후에 아니 결혼하고 살면서 "주례님, 저희들 주례해 주신 덕분에 잘 살고 있습니다."

그 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좋으신 말씀 귀감으로 삼아 저희들 앞으로 잘 살겠습니다."라는 우정 전화 한통 해주는 신랑신부들은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나도 궁금하다. 설날이나 추석 또는 크리스마스 때이든 무슨 명절이 되면 나의 주례를 받던 그들이 잘 살고 있는지.. 하여 이혼은 하지 않았는지.. 무슨 변고는 없었는지...

누가 말했는가. "결혼해보시오. 후회할 것이요, 결혼하지 마시오. 후회할 것이요." 했었던데, 모두 살아보니 그렇고 그래서 아예 주례선생은 안중에 없는지도 모르겠다.

예로부터 투쟁하는 다시 말해 중신애비는 잘해야 쌓이서 말이요, 안되면 뺏아 석대라는 말이 있는데, 주례인도 그러한 것일까?

아무튼 가장 아름다운 청춘의 절정기에, 그 누구나 인생에 한 번뿐인 황홀한 결혼식은 삶에 있어 가장 잊지 못할 숭고한 순간이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예식에 선도자인 주례인은 가장 덕망 있고 존경받

그들이 무엇을 하며 알콩달콩 사는지 궁금하다

는 인생의 선배이므로, 사회의 저명인사 또는 스승이나 원로가 보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 그래야만 할 것이다.

글쎄 내가 나를 돌아볼 때에 과연 내기 지금 열기한 그 축에 들어갈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많은 쌍들이 나를 흠대한 것일까?

사실 나는 아나운서이기 때문에 달변이요, 내가 나를 생각해봐도 주례사 하나만큼은 청산유수다.

저명인사라니, 글쎄 2002년 월드컵 중계이후에 조금 뜨진 났는데 그렇다고 저명인사라고 까진 말할 수 없겠다.

하나의 에피소드로, 40대 초반 중학교 동창의 여석에 주례에서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찾아와 물기를 "아니 근데 주례 하시는 분 연세가 어떻게 주례를 보시우?" 나는 "불혹에 나이올시다."라고 대답했다.

그러기에 그분은 "아이 난 30이나 되셨을까 해서 물었는데, 명함 있으면 하나주시우."

나도 파란한 딸이 있는데 그 때 꼭 주례로 청하리다."라고 요청을 했다.

40대 초반 친구딸 주례 때 나이 묻던 아주머니에 충격

그 때부터 머리에 염색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분은 청하지 않았고, 나는 그때 충격으로 머리에 염색을 하지 않았다.

또 하나의 에피소드로, 건달세대에 건달 왕초의 부탁으로 해 준적도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마냥 신형이 들어와 일절 사절한 적이 있다.

그보다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 중의 하나는, 내가 MBC ESPN에 7년간의 제직시절 아니 최근까지도 난 12명의 PD, 아나운서, 일반사무직 직원에 이르기까지 결혼식 때 주례를 서 왔다. 내가 생각건대, 한 직장

MBC ESPN시절 PD, 아나운서, 사무직원 등 12명 주례기록

내가 주례한 신혼부부들 대부분 딸을 많이 낳았다

둘째도 딸일 때는 내게 누명씩 뒤 너무 섭섭 '내가 무슨 영험한 신령인가?'

에 동료들 12명의 주례를 본 것도 기네스북에 등재되어야 할 게 아닌가? 아무튼 그 아나운서와 PD들이 선배로써 나를 그렇게 선호하여 내게 부탁한 것 이 무엇보다 고맙고, 감사하며, 잊지 못할 것이다.

또한 여기서 강찬금 단국대 학장의 얘기를 소개한다. 어느 날 핸드폰으로 전화가 걸려왔는데, 무슨 대학교수라 했는데 누군지 잘 몰랐었다.

여건만 만나보면 안다기에, 88체육관 유스호스텔인가 커피숍으로 나갔고, 그를 만났다.

만나보니 그는 90년대 초 나와 함께 추운 겨울 용평스키장에서 손을 호호 불며 스키중계를 할 때에 해설자 아닌가!

그래 왜 만나자 하냐고 물었더니, 20여 년 전, 초등학교 3·4학년 이

었던 따님 중 첫째가 그 어린 시절 아버님과 함께 중계했던 임주완 아나운서 아저씨에게 주례를 부탁드리고 싶다는 게 아닌가.

(당시 그들은 어린스키선수였고, 미국에서 공부하며 박사가 되었다.) 나는 감격하여 승낙했고, 바로 그 유스호스텔에서 주례를 땀다.

여기서 내 주례로서의 일단의 감회를 피력하면은, 나의 주례를 받고 결혼한 신혼부부가 이상하게도 대부분 딸을 많이 낳았다.

첫 딸은 삼립밀친 이라해서 좋아했는데, 둘째도 딸이 났을 때는 그 원인이 주례에게 있는 듯한 섬세한 눈길을 받게 될 때에는 참으로 황당할 때가 많다.

그가 무남독녀 외동딸이라든가, 몇 대째 내려온 독자인 경우에도, 그 부모가 나에게 받은 주례가 후회스러운 듯한 말과 표정으로 돌아볼 때는 어이가 없다.

내가 무슨 영험한 신령도 아니고, 아들 딸 골라 낳게 하는 도사가 아닐진대 그 누명을 어찌 나에게 쏟아 부는단 말인가?

요즈음 아들보다 딸을 많이 낳는 것은 TV와 핸드폰 등 전자파에서 나오는 영향이 크다고 하던데 말이다.

언젠가 어떤 친구도 나에게 결혼 주례를 부탁하기에, "아니 내가 주례를 서면 모두 다 딸을 낳는데 자넨 그래도 내게 부탁하겠는가?" 라고 물었더니, 그의 말이 "저의 집안은 모두 아들이라서, 저는 첫딸이 좋은걸요." 라고 하더라..

결국 그도 딸을 낳았다. 아무튼 주례인 나로서도 그들이 무엇을 하며 살든 알콩달콩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연회비 내신분들

* 연회비는 1년에 2만원이며 외환은행 서대문지점 071-13-14297-3 문화방송사우회로 보내주십시오.

평생회비

전춘옥(관리)10/17 조승필(관리)10/18 이상원(편제)10/24 임인숙(관리)10/27
박정인(관리)10/27 이정화(관리)10/27 이수관(관리)10/27 김경로(기술)10/27
金泳日(보도)10/28 강선희(관리)10/28 박은숙(관리)10/31 정철영(보도)10/31
이진숙(관리)10/31 김애경(관리)11/01 김석진(보도)11/10 성기정(관리)11/11
최순근(편제)11/14 김구서(보도)11/16 정광조(관리)11/17 전재철(보도)11/17
진현숙(편제)12/05 성철중(편제)12/05 서복희(관리)12/06 이정준(보도)12/07
최영언(보도)12/08 이미영(Ann)12/14 김을자(관리)12/14 강지현(관리)12/15
이규리(Ann)12/19 함명철(보도)12/20 정연태(편제)12/20 박재석(기술)12/20
이종재(기술)12/21 이상원(기술)12/21 박두선(기술)12/21 변영우(편제)12/21
김형구(편제)12/22 박임실(기술)12/22 차동진(기술)12/22 임경수(편제)12/23
노승화(기술)12/23 이상수(관리)12/23 한범수(편제)12/23 김학정(기술)12/27
양진면(편제)12/27 변종민(기술)12/27 최영달(편제)12/27 장수남(편제)12/27
권호식(기술)12/28 윤창호(편제)12/29 이은실(편제)12/30 윤권준(기술)12/30
장철수(기술)12/30 권영화(기술)12/31

연회비

10월 김금봉(15~18) 김성수(11) 김정명(11) 김주영(11) 김춘규(11) 김희을(11)
박성수(12~18) 박옥(06~11) 방영희(11) 봉현숙(11) 오순심(11) 오정영(11~12)
유정순(07~11) 이명자(11) 이명자(03~12, 80세납부끝) 이중광(12~19, 80세납부끝)
장기태(11) 장효상(09) 정인호(08~11) 진경원(11) 편일평(09~11)

11월 강우현(12~14) 강인숙(11) 구종희(10~12) 김경식(07~11) 김구서(08~11)
김귀현(11) 김병철(11) 김주배(12) 문성수(12) 박문식(11) 백성원(11) 봉필구
(08~11) 송영수(10~11) 양승원(09~11) 옥은경(11) 유무정(11) 유민환(11)
이방근(11~12) 이병석(12~13) 이상혁(11) 이승재(08~11) 이영자(08~12)
이준희(07~11) 전병옥(10~11) 정광조(08~10) 정균(11~12) 정대용(09~11)
최영호(11) 홍신숙(10)

12월 강대형(11~12) 강익원(11) 강찬일(11~12) 권오용(편, 12) 권혁화(13)
김경일(11) 김규홍(10~12) 김병덕(12~13) 김순배(12~13) 김순홍(11)
김시용(11~12) 김은혜(09~10) 김재식(09~11) 김점용(11) 김종국(10~14)
김종현(11) 김중석(11) 김하일(09~12) 김홍배(11) 노범호(12) 박오순(14)
박종환(11) 서복희(08~10) 손도정(12) 송세원(10) 송인익(11) 신낙균(09~11)
안영순(12) 안영식(12) 오정수(10~11) 오학식(11) 이대교(12) 이명수(12~13)
이방근(13) 이보근(11) 이상재(12) 이상영(05) 이소진(11) 이승문(11)
이은실(05~10) 이은춘(06~07) 이중구(11) 이화섭(11~12) 이형식(11)
임봉주(13) 장두형(11) 장인숙(12~13) 전용수(12) 정병준(12) 정영우(05~11)
조은국(10) 조재성(04) 최대용(11) 최승일(09) 최영복(12) 최영삼(10~11)
최영성(12) 하영현(11) 홍순홍(11~12)

신규 입회

10/17 金春玉(관리) 010-3715-3493 영등포구 여의도동40-1 화랑A 3-907
10/18 趙勉正(관리) 011-9991-4399 02-3452-4909 강남구 도곡동 933 쌍용에가 101-301
10/24 李相仁(편제) 010-7110-2445 광명시 소하동 177-2
10/27 李賢賢(편제) 011-9721-3795 031-915-9987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2동 연서터 104-1314
10/27 林仁淑(관리) 010-8893-8932 031-912-9916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1동 강선마을 1702-602
10/27 金貞仁(관리) 010-8931-7296 02-784-7279 영등포구 여의도동 대우트림프월드2차 B-2505
10/27 李廷華(관리) 010-6340-4597 070-7788-4597 영등포구 여의도동 50 시범A 12-52
10/27 李賢賢(편제) 010-6344-7042 02-780-7049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자이A 101-1504
10/27 李秀吉(관리) 010-8742-6372 02-782-6372 영등포구 여의도동 삼부A 2-106
10/27 金辰魯(기술) 010-9983-9212 02-2675-6043 구로구 신도림동 642 대림2차A 401-2201
10/28 金泳日(보도) 010-4558-9782 051-741-9782 부산시해운대구우1동1434-2 하이메리온 B-2202
10/28 康善喜(관리) 010-6362-3806 02-2635-2630 영등포구 양평동5가 한신A 105-603
10/31 朴銀淑(관리) 010-3268-7244 02-594-4406 양천구 목3동 956 롯데캐슬위너 107-803
10/31 鄭相永(보도) 010-5287-1583 02-6091-4236 영등포구 당산동 3가 동부스테이빌 101-604
10/31 李眞淑(관리) 010-6220-7682 02-379-7682 중로구 옥인동 47-152
11/01 金愛慶(관리) 010-8954-5397 02-786-5397 영등포구 여의도동 50 시범A 22-33
11/09 玉銀敬(관리) 010-8264-2216 도봉구 도봉2동 삼환A 3-1411
11/10 金碩鎭(보도) 010-4658-5252 031-813-7522
11/11 成基貞(관리) 010-4257-4195 02-6412-2233 강남구 대치동 63 우성A 7-106
11/14 崔淳根(편제) 010-9105-2341 상주시 이안면 소암리 388-3
11/17 全在哲(보도) 010-5384-0023 강서구 등촌동 75-1 삼부네상스 303호
11/17 金賢賢(관리) 010-2851-6030 경기도 광주시 직동 197-2 한전전원주택
11/30 朴武正(보도) 010-3901-4298 070-8234-4298 고양시덕양구고양동 푸른마을 402-903
12/05 陳賢淑(편제) 010-6406-5781 070-8258-1564 중구 신당동 45 대림e편한세상 102-1102
12/05 成哲重(편제) 010-5268-6235 02-2631-6243 영등포구 당산동 효성A 104-1406

전화/주소 변경

편제
백중석 010-5308-6645 유길촌 010-2793-9080 유창웅 010-8533-7735
전미경 031-512-3075

관리
김정일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산15-8 세종타운 8-302
김재천 광명시 철산동 주공12단지A 1201-1203
박 옥 010-3663-5823
이상필 010-4230-4669 02-948-4669

경조사항

결혼

조병영(편제)장녀10/29 이진세(편제)장녀11/05 정재순(기술)장녀11/12
류상철(편제)장녀11/13 정인호(보도)장남11/13 김영수(보도)차남11/18
고성광(보도)아들11/20 이만규(관리)장남11/26 한박무(보도)차남12/03
이진식(관리)차녀12/03 우종범(편제)아들12/04 윤풍기(관리)차녀12/10
김세일(관리)차남12/17 조복행(관리)장남12/18 김주배(편제)장녀01/07
권오형(업무)장남01/14 이화섭(관리)장남01/14 진수용(기술)장녀01/15

경사

판승 | 전한호(관리)01/01 이상배(미주)01/26 전영현(관리)03/05 이주열(대구)03/22
고희 | 윤현곤(대구)01/01 이상식(편제)01/08 양경윤(기술)01/09 이은혜(미주)01/09
김광배(보도)01/12 홍순영(편제)01/15 김충남(기술)01/21 선남준(관리)02/20
박종환(관리)02/21 김광웅(편제)02/25 이웅재(관리)02/25 유중현(전주)02/27
민영기(관리)03/06 장의규(관리)03/09 박우정(보도)03/10 이정자(미주)03/11
최영삼(편제)03/17 황윤환(기술)03/28
회갑 | 김은휘(Ann)01/02 고춘호(업무)01/04 김철동(기술)01/13 임남규(관리)01/26
이화섭(관리)02/06 정진도(전주)02/10 전종진(관리)02/21 임영택(편제)02/22
서기환(기술)02/27 이근수(기술)03/02 김동환(보도)03/07 김익원(편제)03/10
장상복(관리)03/15

부음

황형정(관리)아들상10/16 남기두(대구)부인상10/21 金榮日(보도)모친상10/21
김종관(업무)장모상10/22 김철동(기술)모친상10/23 서정훈(보도)장모상10/24
안영순(관리)부친상11/09 정환웅(편제)장인상11/20 김필환(관리)모친상11/22
박미숙(관리)시모상11/24 김영복(관리)장모상12/04 박춘평(편제)장모상12/08
장명호(편제)장인상12/25 구분학(보도)부친상12/31 강성호(편제)부친상01/01
임봉주(기술)모친상01/03

- 金正浩(미주): 고혈압과 당뇨병 성인병으로 오래 고생하다가 9월 26일 LA에서 별세했다. 향년 73세. 라디오 개국초기, 인사동에서 음악PD로 활약하다가 1970년대 말에 미국으로 이민갔다. 지난해 4월, 자서전을 출간하기 위해 일시 귀국한 사이, 사우회 사무실에 들르기도 했는데 이것이 그의 마지막 귀국 인사가 됐다.

- 李載壽(관리): 노환으로 11월 25일 별세했다. 향년 80세. 1965년에 입사해 7년동안 자랴부에서 근무했다.

- 鄭換玉(전무): 1920년생으로 92세, 사우회 최고령 회원이었다. 노년에 폐렴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가 12월 9일 별세했다. 우리나라 민간방송의 개척자로서 부산문화방송 설립에 앞장섰고 1961년 MBC 개국때부터 퇴사할때까지 2년 3개월 동안 초대 전무이사를 지내면서 MBC 발전에 초석을 쌓았다.

- 任二郎(기술): 요양을 겸해 보령 용천에 펜션을 지어놓고 부인과 단둘이 생활하다가 12월 16일 심장마비로 별세했다. 향년 67세. 큰아들(임경식)이 MBC 시교양2부 PD로 재직중이다.

12/07 李棟俊(보도) 010-6404-3987 031-992-3531 파주시 다들동 청석마을 905-1206
12/14 金乙子(관리) 010-9096-1667 02-2659-7929 강서구 내발산동657 우장산힐스테이트110-1402
12/17 李美瑛(Ann) 010-9955-3299 031-903-0407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785 아이스페이스 304호
12/19 李揆利(Ann) 011-284-0969 02-2293-8813 성동구 옥수동 극동A 1-406
12/20 鄭然太(편제) 010-9256-9905 011-9256-9905 강서구 염창동 동아A 201-502
12/20 郭在寅(기술) 010-5327-4085 02-455-2024 광진구 구의3동 546-7 강변우성A 101-2108
12/21 李鎭采(기술) 010-3167-6155 031-916-8838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2동 문촌마을 1805-1502
12/21 李相元(기술) 010-5353-9616 02-454-9616 광진구 광장동 413-15 시원빌라 102호
12/21 朴斗善(기술) 010-3167-7209 031-983-7209 김포시 감정동 쌍용A 108-604
12/21 卞宇宇(편제) 010-8922-2253 070-8835-2253 고양시일산서구대화동 2223 삼문트루아 510호
12/22 金亨求(편제) 010-3765-3497 031-977-5766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중산마을 908-803
12/22 朴仁實(기술) 010-5312-1850 02-2652-6465 양천구 목동 902 목동신시가지A 230-506
12/22 車東辰(기술) 010-3158-3489 031-815-0529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1동 강선마을 501-1502
12/23 林慶洙(편제) 010-6323-9266 02-2646-9266 양천구 목5동 901 목동A 121-1202
12/23 盧承和(기술) 010-3722-4623 031-982-4623 김포시 장기동 청송마을 105-1302
12/23 李成洙(관리) 010-3939-1820 02-2653-4808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A 131-305
12/23 韓範珠(편제) 010-3173-5808 031-976-5801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중산마을 910-403
12/26 金學廷(기술) 010-3752-4228 02-325-4228 양천구 목동 913 신시가지A 526-204
12/27 梁鎭勉(편제) 010-6232-3945 031-947-3954 파주시 교하읍 책향마을 403, 707-902
12/27 卞鎭勳(기술) 010-9192-4656 070-8814-4656 파주시 교하동 91-62 SBS전원주택 D-55호
12/27 崔未達(편제) 010-6211-5231 031-922-1866 고양시일산동구 중산동 중산마을 206-1302
12/27 張秀男(편제) 010-8773-0447 고양시 덕양구 도당동 336-21
12/28 權鎭勳(기술) 010-3759-1934 02-2652-0934 양천구 신정6동318-12 목동삼성세브란스2차A 607호
12/29 尹昌鎭(편제) 010-3742-1590 032-565-4657 인천시 서구 불동동 179 동부A 105-101
12/30 尹權重(기술) 010-3898-9184 031-972-0689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1091 서정마을 1004-203
12/30 張徹洙(편제) 010-3160-1045 031-947-7045 파주시 교하읍 삼남리 91-57
12/31 權事和(기술) 010-3728-0571 02-424-2207 송파구 잠실6동 장미A 14-405


이중형 송파구 잠실3동 27 주공A 530-405
홍성기 은평구 진관동 88 은평뉴타운 우물골 214-506

보도

김정명 010-3845-4010 신형창 010-5541-5144 최종걸 010-8231-2201

기술

강대형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 692 우림필유A 104-204
조위식 070-7583-5408 광진구 구의2동 122-3 정호빌라 102호

중국이야기 

간판글씨에도 낙관적이고 음식에는 스토리 입힌다

前 전주MBC 사장 유 희 근

1. 심천의 천지개벽 아시나요

중국에서 부자가 가장 많은 곳은 어디일까? 상해? 아니다. 고층 빌딩이 가장 많은 곳은 어디일까? 북경? 아니다.

중국 IT 산업의 70퍼센트를 생산하면서, 북경은 물론 상해를 경제적으로 압도한 도시가 있다. 중국에서 월급이 가장 높은 곳이다. 深圳(심천)이다.

30년 전에는 인구 3만에 불과했던 허허벌판이, 천만이나 되는 대도시가 됐다. 그런데 길거리나 시장이나 공원에 서도 노인은 별로 보이지 않고, 젊은이가 가장 많은 곳이다.

도시 평균 연령이 27세로서 중국에서 가장 낮은 곳이다. 여자가 훨씬 많다. 그만큼 여자를 필요로 하는 직장이 많다는 뜻이다.

심천은 관광객으로 가득 찬 도시가 됐다. 대형 가무 쇼가 시내 곳곳에서 펼쳐지고, 공연장마다 가득 찬 관광객들에게 감동을 준다. 가무 쇼라든지 중국 소수민족 의상공연은 그 화려함의 극치를 이룬다. 공연에 등장하는 사람 수가 무려 500명.(사진)

하늘에서 폭포가 쏟아지고, 땅이 갈라지는 등, 상상을 초월하는 대형 무대 설치에 드는 비용도 500억이 보통이다. 웅대한 스케일, 내용의 다양성과 색채의 화려함은 세계적이다.

출연자들은 175센티가 넘는 늘씬한

여성들로서 모두가 빼어난 미모를 자랑한다. 온화한 날씨, 길거리마다 화려한 꽃과 싱싱한 아열대 나무로 가득 찬 곳, 그래서 관광객이 몰릴 듯이 찾아온다.

30층, 40층짜리 고층 호텔이 계속 신축중이다. 낡은 집도 없고, 좁은 도로가 없는 도시, 심천은 해마다 등소평에게 감사의 祭(제)를 지낸다. 왜? 너도나도 큰 부자로 만들어준 것을 감사하는 것이다. 등소평은 중국의 개혁과 개방을 시도하면서 이렇게 외쳤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잡으면 된다” 그러면서 심천을 맨 처음 경제특구로 지정했는데, 경제특별지구 선언 30년 만에 중국 최고 번영의 도시가 된 것이다. 천지개벽은 상해가 아니라 심천이다.

2. 오월동주의 땅 향주

중국의 사대미인이 누구일까? 오래된 시대 순으로 열거하면 서시, 왕소군, 초선, 양귀비이다.

춘추전국시대 월나라 미인 서시의 비극이 얹힌 西湖(서호)가 있는 곳, 향주. 지상의 낙원, 향주는 중국 7대 관광지이다. 향주에 있는 서호는 황제들이 대단히 선호하는 휴식처였다.

향주에는 청나라 시대의 장터를 옛 모습 그대로 재현한 청하방(淸河坊)이 있

다. 들어가는 입구부터 멋진 간판이 눈길을 끈다.

泰和祥(태화상)- 泰平의 泰, 和合의 和, 祥瑞를 다의 祥-세 글자가 모두 다 좋은 뜻이다.

중국인들은 이처럼 간판에 좋은 뜻을 가진 글자들을 총동원한다.

간판은 빨간색이 많고, 오색등을 달아 놓아, 관광객들의 관심을 끈다. 특이한 것은 간판마다 그 글씨를 쓴 사람의 이름과 낙관 도장이 있다.

간판 글씨 쓴 것을 큰 자랑으로 뽐내고 있다. 또 다른 간판 이름은 吳越人家(오월인가) - 吳나라와 越나라 사람의 집이라는 뜻. 향주는 춘추전국시대 오나라와 월나라 간의 전쟁무대였다.

吳越同舟(오월동주)와 臥薪嘗膽(와신상담)은 이 지역을 중심으로 吳王(오왕) 부자와 越王(월왕) 구천 사이에 얹힌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와중에 생긴 말들이다.

吳越人家(오월인가) - 이와 같이 간판 하나에도 중국인들은 역사를 의식하면서 살고 있다. 음식문화가 발달한 중국에서는 어디가나 음식점 간판이 가장 많다.

중국인들은 음식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엮어, 그 음식을 먹으면서 역사를 인식하게 만드는 특징이 있다. “옛날 황제가 즐겨먹었다”면서 거지닭도 팔고, “소동파가 즐겨 먹었다”면서 동파육을 파는 음식점이 인기 있다.

청나라 옷을 입고 중국산 한약재를 파는 곳이 눈길을 끌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차를 마시는 중국인답게 차를 파는 상점이 많다.

실크로드가 시작되는 시발점이었던 향주의 淸河坊(청하방)에는, 오늘날에도 비단을 많이 팔고 있다. 실크로 만든 원피스, 실크로 만든 블라우스...등 여성들의 옷이 인기 있다.

3. 버려진 땅에서 황금알 마카오

澳門(오문)이라는 이름을 가진 곳이 어디일까? 잘 모르겠다는 사람이 많다. 동양 최대의 카지노 관광도시라면 짐작을 할까? 그렇다. 마카오다. 중국 발

음으로 아오먼(澳門)이라 부르는 마카오는 밤의 도시, 한락의 도시, 도박의 도시답게 호텔과 리조트 건물이 초호화판이다.

“스탠리 호”라는 대 부호가 무려 40년 동안 카지노 사업을 독점해왔고, 그가 소유한 카지노가 무려 36개나 된다는 설도 있다. 마카오 세금의 60퍼센트를 낸다는 스탠리 호는 그의 정식 부인만 4명, 자녀는 17명이나 되는 등 화제가 무궁무진 하다.

그런데 2001년부터 해외 자본 투자가 자유화됐다. 그 결과 미국 최대의 카지노 부자가 건설한 베네치아 호텔이 카지노 도박의 중심지로 관광센터가 됐다. 방이 3천개나 된다니, 카지노 시설은 세계 최대라니...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실내에 水路를 만들고, 다리를 만들고, 배를 띄운다.

그래서 마치 베니스에서 곤돌라 타고 여행하는 기분도 들도록 환상적으로 설계했다. 벽과 기둥은 모두 대리석으로 장식했고, 천정과 벽에는 바티칸 성당의 천정 벽화를 흉내 냈다.

지금까지는 세계 최고의 카지노 도시, 세계 최대 환락의 도시는 라스베가스였다. 그러나 2006년 이후 마카오가 라스베가스의 수입을 추월했다고 자랑한다.

마카오는 과거에는 珠江(주강) 하구에 쌓인 삼각주였을 뿐이다. 경작지도 별로 없어 거의 버려진 땅이었다.

100년 동안 매립하고 정리한 결과, 그 옛날 버려진 땅이 지금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됐다.

그러자 중국에서는 제 2의 마카오를 준비하고 있다. 마카오 바로 옆 珠江 하구를 매워, 마카오의 수십 배나 되는 면적에 환락 시설을 계획하고 있다.

대형 카지노와 골프장, 각종 오락시설과 숙박시설을 건설할 수 있도록 대규모로 정치 작업 중이다.



회원동정



이수홍(고분)

경주마 「백광」은퇴 1억원 기부천사

불굴의 경주마였던 「백광」마주, 「백광」이 11월 5일, 마체감사에서 경주부적격 판정을 받고 은퇴하는 자리에서 감사패를 받았다. 「백광」은 자신의 이름으로 1억원이 넘는 금액을 장애인 재활치료에 기부한 「기부천사」였다.



구본홍(보도)

고대 「2011년 자랑스런 정경인상」 수상

CTS 기독교TV 사장.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교우회가 수여하는 「2011년 자랑스런 정경인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시상식은 11월 17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거행됐다.



이만우(보도)

신년오찬모임 주관

사우회고문.

1월 5일(목) 한정식집 多井에서 동호회회장 등 40여명의 사우회 회원을 초청해 2012 신년인사를 겸한 오찬모임을 주관했다.

이교문은 2006년도 부터 매년 신년오찬을 주관해 왔으며 올해가 일곱번째다.



김상기(보도)

시집 「아내의 묘비명」 출간

前 대전MBC사장.

12월 5일 시집 「아내의 묘비명(후면 앤북스)」을 출간했다.

3부로 구성돼 있는 이 시집은 4년 전에 세상을 떠난 아내를 그리는 애절한 마음과 깊은 부부애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총 66편의 시가 담겨 있다.



성경환(ANN)

tbs 서울교통방송 본부장 취임

前 MBC아카데미사장.

12월 19일 서울시 교통방송 본부장으로 취임했다.



한박무(보도)

보도전문채널 뉴스Y 시청자위원 위촉

언론중재위원회 증재위원

12월 21일 보도전문채널인 뉴스Y의 시청자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권영만(관리)

「권영만의 꿈 너머 꿈」 출판 기념회

前 EBS사장.

12월 27일 프레스센터에서 「권영만의 꿈 너머 꿈」 출판 기념회를 가졌다.

2012 제주**MBC** 연중캠페인
자연과 사람이 함께 웃는

제주

